

전설적 록밴드 롤링 스톤스 쿠바서 무료 공연



영국 출신의 전설적 록밴드 롤링 스톤스가 25일(현지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의 시우디드 데포르타바 경기장에서 첫 공연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타리스트 키스 리처드(오른쪽)와 론 우드가 연주하는 모습.

영국 출신의 전설적 록밴드 롤링 스톤스가 25일(현지시간) 쿠바에서 역사적인 첫 공연을 개최했다. 한때 락 밴드의 음악을 틀어야 했던 쿠바팬들은 한없이 자유를 만끽했다. 롤링스톤스는 이날 쿠바 수도 아바나의 시우디드 데포르타바 경기장에서 무료 공연을 개최했다. 쿠바인과 관광객 수십만 명이 밴드를 보기 위해 전날부터 밤을 꼬박 새웠다. 리더싱어 믹 재거(72)는 밴드의 명곡 '점

핀 잭 플래시(Jumpin' Jack Flash)를 부르기에 앞서 스페인어로 "안녕하세요 아바나! 쿠바 여러분 즐거운 저녁입니다"라고 소리치며 분위기를 달랬다. 은색 재킷에 와인색 셔츠를 입은 재거는 '앤지'(Angie), '이즈 온리 로큰롤'(It's Only Rock 'n Roll But I Like It) 같은 밴드의 명곡을 잇달아 시원스럽게 열창하며 땀을 흘렸다. 전 세계에 로큰롤 열풍이 불어닥친 1960년대에 10대 시절을 보낸 호아킨 오르티즈

(62)는 "오늘이 지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어느새 밴드 멤버들 만큼 나이를 먹은 그는 "롤링스톤스를 보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다"라고 감격에 젖었다. 카스트로 공산주의 정권의 쿠바 혁명(1959년) 이후 1980년대까지 쿠바에서는 롤링스톤스 같은 서구 록밴드의 음악은 체제 전복적으로 분류돼 라디오 방송이 금지됐다. 음악 감상 자체가 공식 금지된 것은 아

서구 록밴드의 공연 쿠바 개방의 신호탄 1960년대 팬들 감격 공연보러 밤 새우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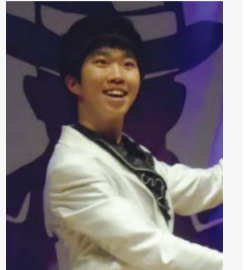
니었지만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서구 록밴드의 음악을 듣는 행위는 대중들 사이 지탄받을 일로 여겨졌다. 오르티즈 같은 쿠바 팬들은 음반을 돌려 들으며 몰래 밴드의 노래를 감상했다. 롤링스톤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 이틀 만인 전날 아바나에 도착했다. 현지 미국 대통령의 88년 만의 쿠바 방문과 서구의 전설적 록밴드의 공연이 쿠바 개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재거는 앞서 호세 마르티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명 지난 몇 년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간이 모든 걸 바꿔왔다. 쿠바에 오게 돼 기쁘다. 엄청난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연을 찾은 이들 가운데는 현지인들 외에 '롤링스톤스의 쿠바 공연'을 보려고 일부러 찾아온 관광객들도 많았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폴 해럴드는 친구와 함께 요트를 타고 쿠바로 왔다. 쿠바 팬들은 공연 시작 한참 전부터 모여 롤링스톤스의 등장을 기다리며 에이미 와인하우스 등 서구 유명 뮤지션들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공연을 보러 온 라울 포디요(22)는 "이건 역사라며 '더 많은 밴드를 보고 싶다. 훨씬 더 다양한 뮤지션들이 올 거다. 이는 우리가 이전보다 덜 고립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기뻐했다. /정혜은 기자

■본사 전국청소년미술경연 인터뷰

“미술은 진지한 미래의 꿈”

최우수상 Magic-J Ent 소속 윤양구 학생

청소년 같지 않은 무대 매너, 다양한 표정, 빼어난 프로그램 제6회 전국청소년미술경연대회 '우수'를 차지한 윤양구(19·사진) 학생의 무대 느낌이었다. "19살의 나이로 청소년 대회 출전은 마지막 이었는데, 최우수상을 수상해 정말 행복해요"



우승을 차지한 윤군의 인터뷰 첫머리였다. 충청남도 천안 Magic-J Ent 소속의 윤군은 이미 동아보건대학교 미술학과 특수 수시전형에 합격해 미술이 취미가 아닌 진지한 미래의 꿈으로 생각하는 학생이었다. 친구들이 신기해하는 모습이 좋아서 처음 시작했다는 미술이 이렇게까지 진지한 꿈이 된 것에 본인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군은 "오늘 특별한 공연을 해준 지혜준 선배처럼 멋진 프로미술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라며 "오늘의 수상을 평생 잊지 못하고 천안에서 함께 온 지용이 준형이도 2년 안에 꼭 우승했으면 좋겠어요"고 같이 온 후배들에 대한 사랑도 표현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후배들 지도 멘토로”

특별출연 프로미술사 지혜준씨

수려한 외모, 훗칠한 키 이번 제6회 전국청소년미술경연대회 특별공연을 펼친 프로미술사 지혜준(사진)의 첫 인상이었다. 지혜준 미술사는 제2회 전국청소년미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도지사상)을 수상하고 다음해 열린 제3회 전국청소년미술경연대회에서 대상(장관상)을 수상했던 이번 대회와 역사를 함께해온 인물이었다. 지혜준 미술사는 인터뷰에서 "후배들을 보면 재 4년 전 모습이 생각나 너무 가슴이 뛰어요. 아직 우리나라의 미술 기반이 완벽하지 못해 힘겨워할 후배들을 보면 하나하나 더 챙겨주고 싶고 신경 쓰고 싶어요"라며 후배들의 앞길을 걱정했다. /글=김민근·사진=인진수 기자



중앙선관위, 4월 13일 총선 홍보웹툰 ‘선거외전’ 제작

선거·시청자 투표 등 모든 투표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가요 프로그램에서는 1위 가수를 가리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하고(사진), 영화 시상식에서는 롤렛으로 우수 연기자를 뽑는 우스운 풍경이 펼쳐진다. 이 내용은 투표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툰의 한 장면이다.



웹툰이 홍보와 재미를 동시에 잡는 마케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웹툰 마케팅은 반화 유효율을 헤쳐나가는 선에서 캐릭터들이 특징 상투어나 이슈를 재미있게 소개한다. 만화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웹툰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를 위해 웹툰을 택했다. 선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 다룬 웹툰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고 있다. 브랜드 웹툰 이름은 '선거외전'으로 지었다. 흥행 영화 '김시외전'을 패러디한 제목이다. 중앙선거위원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데마웹툰에 연재되는 이 작품은 지

난 3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한화씩 올라오고 있다. 선거외전에는 인기 웹툰 작가 이예원, 신태훈, 나승훈, 주드, 파이네이, 이말년, 미디, 첫뽀, 익수, 이도진, 이선, 이은자가 등이 총출동했다. 기업 광고계에서 웹툰은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는 현재까지 220여 개의 브랜드 웹툰이 연재됐다. 소재는 정부부처 정책, IT 신제품 등 다양하다.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브랜드와 서비스를 알리고 있다.

KT는 신규 요금제 'Y24'와 자사 스포츠단 홍보를 위해 네이버 인기 웹툰 작가 기인84(본명 김희민)와 손잡았다. Y24는 만 24살 이용자에게 데이터 3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요금제로 웹툰 구독자층인 20대를 겨냥했다. KT의 브랜드 웹툰 이름은 '체육왕'이다. 기인84의 전작 '패션왕'과 '복합왕'을 잇는 이야기로 KT 스포츠단 인기 선수들의 특징을 캐릭터에 녹였다. 8회까지 연재된 체육왕은 누적 조회 수 2500만건을 넘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뉴스

전주해금연주단 연주회 내일 밤 7시30분 개최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

전주해금연주단의 정기연주회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계에 시조시의 노래를 엮어 부르는 성악곡인 '가곡'을 주제로 한다. 공연 프로그램은 성악과 가곡으로 구성되며 마지막은 남녀가 함께 부르는 합창 형식의 옛날 가곡인 태평가로 갈무리 된다. 대부분의 가곡이 가야금, 거문고, 대금, 세피리, 해금, 양금, 장고 등의 악기로 편성돼 반주되지만 이번 연주회는 단아하고 정갈한 소리를 들려주고자 가곡 중 5곡을 해금으로만 연주한다. /정혜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초청가수 정해진 분위기 돋워

제 5회, 6회 전국청소년미술경연대회 특별공연을 해준 가수 정해진(사진)은 훗칠한 키에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진 가수였다. 2011년 데뷔해 '시작'이라는 비정규 앨범과 '누가 누가'라는 정규 앨범을 발매하며 많은 활동을 하던 정해진 양은 2015년 11월 정규 1집 '결'에 있어도 / 바로 나'를 발매하며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정해진 양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속사에 들어간 이후 심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지원을 받게 되어 온전히 무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최근 좋은 활동을 펼치는 이유를 밝혔다. /김민근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3월 28일>

▷쥐띠 46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 60년생: 뒷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 72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화가 발생하니 매사 약한 모자런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84년생: 판단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니 욕단독행은 삼가라.	▷소띠 48년생: 지나친 고집으로 인해 고독이 따르게 된다. 61년생: 처음에는 힘들고 고난이 많으나 후반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마음을 굳게 가져라. 73년생: 욕심은 금물, 남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85년생: 동성의 도움을 보다는 이성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수월하다.	▷호랑이띠 50년생: 운서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기니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62년생: 원한은 삼가라. 욕을 입지 마라.74년생: 정신이 맑지 않으니 중요한 일은 삼가고 세밀한 작업은 타인에게 맡겨라. 86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엇갈리는 운이다.	▷토끼띠 51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매사에 겸손함이 필요한 운. 63년생: 일찍인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운.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조심스럽게 진행하라. 87년생: 아랫사람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미리 대비하라.
▷용띠 52년생: 처음에는 힘들고 고독하니 나중에는 뜻대로 이루어진다. 64년생: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운이다. 76년생: 속마음과 다르게 언행을 하게 되니 솔직한 자기표현이 필요한 운. 88년생: 먼저 내보내면 후에 더 큰 이익이 있으니 베푸는 게 좋다.	▷범띠 53년생: 정신적인 압박은 있으나 심리적인 부분일 뿐이다. 65년생: 타인에게 본의 아니게 큰소리 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리기 힘들으니 미리 주의하라. 77년생: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라. 89년생: 동기간과 함께 하면 불가항한 일도 해낼 수 있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운. 66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할 운이다. 78년생: 허니를 함으로 들을 얻을 수 있는 운이니 긍정적으로 행동하라. 90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	▷양띠 55년생: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는 하지 마라. 67년생: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79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상처 될 수 있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91년생: 운이 좋지 않으니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고 지중하라.
▷원숭이띠 56년생: 행방은 삼가는 것이 좋다. 뜻하지 않은 실명으로 근심이 생긴다. 68년생: 평소와 일없이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80년생: 평소와 다른 덕이 복으로 돌아오는 때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정신적 소모는 많고 얻는 결과는 적다.	▷닭띠 57년생: 금전운이 들어왔으니 작은 일은 성공한다. 69년생: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 81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비단처럼 실망이 크니 마음을 비워라. 93년생: 평소와 다른 복이 복으로 돌아오는 때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개띠 49년생: 근전으로 인해 근심 걱정이 생기는 운. 59년생: 매사 처리해야 하는 일은 일찍 움직여야 성사가 된다. 늦게 움직이면 기회를 놓치게 되니 주의하라. 70년생: 다른 사람의 덕을 보기 어렵다. 82년생: 처음에는 구설이나 후반에는 화합이니 먼저 베풀라.	▷돼지띠 47년생: 이성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된다. 59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성사가 가능하다. 상함을 잘 파악하고 행동하라. 71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8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덕함이 따르는 운이다.